

## 중구, 4개 기업과 함께 올해 첫 ‘공향일자리 채용의 날’ 개최

중구(구청장 김경찬)는 오는 14일 구월동 소재 인천고용복지플러스센터 지하 2층 채용행사장(남동구 문화로 131)에서 ‘2026년도 제1회 공향일자리 채용의 날’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공향일자리 채용의 날’은 항공산업 분야 일자리 확대와 관련 기업의 인력수급 문제 해결을 위해 마련된 행사로, 인천 중구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항공일자리센터가 협업체 운영한다.

행사는 ㈜엑스퍼트, ㈜프로에스콤, ㈜유니에스 ㈜맨파워코리아 총 4개 기업이 참여한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이들 업체는 현장 면접을 통해 특수경비원, 보안감색원, 공항라운지 미화원, 지상조업(하기/탑제), 기내식, 기내용품 세팅, 푸드코트 조리·세척 등의 업무 분야에서 약 112명의 인력을 채용할 예정이다.

특히 구는 구인기업-구직자 간 현장 면접 외에도, 구직자 대상 1:1 취업 진로상담 등을 운영해 원활한 채용이 이뤄지도록 도울 방침이다. 항공산업 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라면 누구나 이번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참가 희망자는 이력서를 지참해 당일 행사장을 방문하면 된다.

중구 관계자는 “2026년 첫 진행되는 이번 행사가 항공산업 분야 기업의 구인난 해소와 지역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구직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 남동구, 2026년 공동주택

###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

남동구는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026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및 다세대주택) 단지 내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관리종사자 근무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공용시설물 유지·관리(옥상 방수 공사, 단지 내 도로포장 등), 재난 관련 시설 보수(위험 담장, 옹벽, 옥상 기와 등), 관리종사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이다. 예산 범위 내에서 공사비의 30~70% 이내로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2월 2일부터 3월 6일까지로, 지원이 필요한 단지는 신청서 및 구버서류를 갖춰 기간 내 구청 공동주택과로 제출하면 된다.

구는 접수 완료 후 서류 검토 등을 거쳐 4월 중 공동주택 관리지원 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대상 단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또한, 신청인들의 서류 작성 및 업체 선정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도움업체’ 및 ‘남동구 소재 전문건설업 목록’을 제공한다.

박종호 남동구청장은 “노후화된 공동주택의 시설 개선을 통해 주민들의 생활 여건 및 종사자 근무 환경이 개선되길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 미술평론가 이주헌 초청 ‘행복한 그림이야기’ 강좌 운영

### 명화를 스토리텔링으로 풀어내는 시민 대상 미술인문학 강좌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 인천도서관은 오는 2월 2일부터 미술평론가 이주헌을 초청해 ‘아트 스토리텔러-이주헌이 들려주는 행복한 그림 이야기’강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강좌는 인천도서관 2026년 상반기 미술 인문학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명화를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풀어내 시민들이 미술을 보다 쉽고 친근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미술 감상을 통해 삶의 행복과 창의성, 인문학적 의미를 함께 살펴보는 대중 강좌다.

강연을 맡은 이주헌 평론가는 제12회 이경성 미술이론가상 수상자로, EBS 「이주헌의 미술기행」과 「청소년 미술감상」 등을 진행하며 미술 대중화에 기여해 온 국내 대표 미술 해설가로 알려져 있다. 또한 『50일간의 유럽 미술관 체험』 등 다수의 저서를 통해 재미있는 이야기로 풀어내며 대중과 꾸준히 소통해 왔다.

강좌는 총 3회에 걸쳐 진행된다.



첫 시간인 행복한 명화 감상을 시작으로, 미술로 보는 창의력의 세계, 그리스 신화와 미술이라는 세 가지 주제가 매주 차례로 다뤄진다.

강의는 2월 2일부터 23일까지 매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인천도서관 지하 1층 강당에서 열릴 예정이다.

접수는 인천도서관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전화☎ 032-440-6665로 할 수 있으며, 심하린 기자

##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현장지원 만족도 ‘전국 1위’ 쾌거

### 인천광역시교육청, ‘또래 생명지킴이 강사 양성’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학교 현장의 업무 경감을 위해 추진한 ‘학교 현장지원 정책’이 전국 단위 공식 조사에서 최고 수준의 평가를 받았다고 9일 밝혔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주관한 전국 학교지원 전담기구 만족도 조사에서 인천시교육청학교지원단 ‘학교 현장지원 정책’이 업무지원 전반 만족도, 행정업무 부담 감소 체감도, 직무만족 향상 체감도 등 주요 지표에서 모두 전국 1위를 기록했다.

이번 성과는 학교지원단이 학교 현장 지원 정책의 실행 주체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결과로 평가된다.

학교지원단은 그동안 교무학사 업무지원, 학교행정 업무지원, 학교 교육환경 지원, 인력 채용 관리와 학교시설 안전 점검 등 일선 학교의 교육활동을 뒷받침하며 학교가 수업과 생활지도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왔다.

특히 이러한 성과의 중심에는 인천시교육청 전기관이 함께 실행한 「인천 학교현장지원 방안 100선」이 있다. 학교 현장의 목소리로 과제를 발굴하고, 실무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실행 방안을 도출하여 현장 체감형 업무 경

감을 실현해 온 것이다.

도성훈 교육감은 “이번 전국 1위 달성은 인천시교육청 모두가 하나가 되어 학교 현장을 지원한 노력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진 결과”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학교가 교육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는 든든한 지원 체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9일 초·중등 교원 180명을 대상으로 인화여자고등학교에서 ‘또래 생명지킴이 강사 양성 연수’를 실시한다.

이번 연수는 자살 고위험 학생 실제 대응 사례 특강 및 학생 대상 생명지킴이 교육의 실재를 주제로 5차시에 걸쳐 진행되며, 성균관대학교 외상심리전강연구소 이동훈 소장의 특강과 8명의 전문상담 교사가 실습 교육을 진행한다.

연수 후 양성된 강사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생명존중 인식을 개선시키고 위기 징후에 대한 민감성을 높이기 위한 ‘생명지킴이 교육’을 실시한다.

인천광역시교육청은 교직원 및 학생들이 위기 징후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생명존중 인식 개선과 자살 예방을 위해 보편적 예방교육과 발굴·개입·치료의 맞춤형 지원 체계를 지속해서 발전시킬 계획이다.

심하린 기자

## 부평구-한국철도공사, 백운역 에스컬레이터 개통

부평구는 백운역 2번 출구에 에스컬레이터 신설 공사가 완료돼 정식 운영 중이라고 9일 밝혔다.

지역주민의 이동편의 향상과 교통약자 접근성 강화를 위해 추진한 이번 에스컬레이터 개통으로 생활 속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주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역사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차운택 구청장을 비롯한 구 관계자들은 이날 백운역을 방문해 에스컬레이터 등 시설을 둘러보고, 시설 안전 등을 살폈다.

백운역 2번 출구는 최근 주변 재개발로 아파트 단지가 대거 들어서며 이용

객이 급증했지만, 이동 편의시설이 없어 교통약자들이 큰 불편을 호소해 왔다.

이에 구와 한국철도공사는 지난 2024년 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총사업비 11억6천만원을 투입해 ▲에스컬레이터 신설 ▲엘리베이터 교체 및 계단 개량을 진행했다.

구 관계자는 “백운역 에스컬레이터는 지역 주민의 간절한 요구가 반영된 성과”라며 “부평구는 앞으로도 지역 내 교통시설 정비 및 교통환경 개선을 통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심하린 기자

## 26학년도 웅진군농업대학 신입생 모집

웅진군(군수 문경복)은 2026학년도 웅진군농업대학(생활농업학과) 신입생을 오는 12일부터 2월 20일까지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웅진군농업대학은 창의와 혁신을 갖춘 전문농업경영인 양성을 목표로 지난 2013년 개설했다. 현재까지 총 420명의 졸업생을 배출했으며, 현장 적용형 기술교육과 실습 중심의 과정 운영을 통해 지역 농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해 오고 있다.

이번 2026학년도 과정은 총 50명을 모집한다. 교육은 격주 목요일에 진행되며, 전체 교육 시간의 75%(3/4) 이상 출석 시 졸업 자격이 부여된다.

교육 과정은 ▲텃밭채소·고구마·고추·비·과채류 재배기술 ▲지유농업 ▲토양학 ▲유용미생물·발효 실습 ▲농기계 이론·실습 ▲사전촬영 기법 ▲소통·커뮤니케이션 교육 등 영농 현장에 즉시 활용 가능한 실용적인 교과목으로 알차게 구성됐다.

지원 자격은 웅진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으로, ▲농업경영체 등록 후 실제 농업 종사자 ▲귀농 희망자 ▲영농에 관심 있는 군민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입학할 희망하는 군민은 입학지원서 및 영농 확인서류 등을 구비해 웅진군농업기술센터 인재육성팀 또는 각 면 지구지소 및 농업인상담소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합격자는 3월 중 개별 문자로 통보될 예정이다.

## 강화군, 미래 농업 이끌 청년 후계농 13명 선발

강화군(군수 박용철)은 지역 농업의 미래를 이끌어 갈 청년 후계농업경영인 13명을 선발했다고 밝혔다.

청년 후계농업경영인 제도는 농업 발전을 선도할 잠재력을 갖춘 청년 농업인을 대상으로 자금·교육·컨설팅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해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돕는 사업이다.

영농 초기 소득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 최장 3년간 월 최대 110만 원의 영농정착 지원금을 지원하고,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자금 융자, 기술·경영 교육 및 컨설팅, 농지은행 사업 등을 연계해 체계적인 정착 기반을 마련하도록 돕는다.

강화군은 2018년부터 청년 후계농업경영인을 지속적으로 선발·육성해 왔으며, 올해까지 총 164명을 선발해 육성해 왔다. 이를 통해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농업 현장에 젊고 역량 있는 인재를 유입해 농업의 세대교체를 촉진하고, 강화 농업의 중·장기 경쟁력 확보와 지역 활력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올해는 총 33명이 신청해 이 중 13명

이 최종 선정됐다. 선발 과정은 청년 농업인의 영농 의지와 경영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서류심사와 블라인드 면접 평가로 진행됐다. 특히 면접 평가는 농업·경영 분야 외부 전문가로 평가위원단을 구성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한층 강화했다.

한편, 올해 강화군의 선발 인원은 인천광역시 전체 청년 후계농 선발 인원 18명 가운데 약 72%를 차지해, 강화군이 청년 농업인 육성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최종 선정된 청년 후계농 13명은 식량작물, 채소, 축산 등 다양한 영농 유형으로 구성됐으며, 비·쌀보리·콩·순무 등 강화군 특화 작목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영농 정착이 기대된다.

박용철 강화군수는 “청년 후계농 육성은 강화 농업의 미래를 준비하는 핵심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선발 절차를 바탕으로 청년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맞춤형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심하린 기자

